

다니엘 K. 다르코 박사, 루가 복음, 세션 28, 영생에 대한 질문, 누가복음 18:18-19:27

© 2024 댄 다르코(Dan Darko)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것은 루가 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다니엘 K. 다르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번호 28, 영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루가 복음 18:18-19:27.

루가 복음에 대한 Biblical Element 강의 시리즈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양한 내용을 다루었고, 이제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계속합니다. 이전 강의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특히 기도에 대해 언급하시고 과부와 세리의 위치를 강조하신 것을 보았고, 저는 유아들이 예수님께 데려왔고 제자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읽을 수 없게 막으려 했다는 이야기로 세션을 마쳤고, 예수님은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 아이들이 왕국에 속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시작하여 영생에 대한 질문을 살펴보고, 저는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관원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나를 선하다고 부르십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습니다. 당신은 계명을 알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가지고 계셨을 때, 그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아직 부족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그가 이것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는 매우 슬퍼했습니다. 그는 매우 부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슬퍼하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산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습니다. 26절 그것을 말한 사람들은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는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보십시오. 우리는 집을 떠나 당신을 따랐습니다."라고 말했고, 그는 그들에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왕국을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은 이 시대와 내세에서 여러 배나 더 많은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특정 이야기는 몇 가지 유사점과 이 강의의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의 주의를 끌게 할 몇 가지 사항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강의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부유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버리지 않는 사람을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나중에 삭개오의 경우,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자발적으로 버리고 싶어하는 방법을 보여주셨는지 볼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계속 진행하면서 빠르게 관찰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부유한 통치자가 예수에게 귀속된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는 그를 좋은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께서 왜 나를 좋은 선생님이라고 부르느냐고 항의하신 것을 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많은 사람에게는 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 몇 가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의 지시를 듣지 않고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예수이고, 그 사람이 당신을 좋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 계획한다면, 몇 가지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이 아침의 한 형태인지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지위 의식이 강해서 예수에게 왔을 때, 예수에게 매우 큰 직함을 내세워야 자신에 대해 기분 좋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예수가 누구였는지에 대해 반드시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그런 것일까요? 그가 너무 지위 의식이 강해서일까요, 아니면 예수에게 아침하는 한 형태일까요? 예수가 좋은 선생님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의 항의는 좋은 선생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좋은 선생님의

지시를 따르지만, 이 통치자는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관찰할 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통치자의 위치입니다. Olin Luke는 여기서 이 사람을 부유한 통치자 Arkon 이라고 부릅니다 .

이 같은 언어는 19장에서 삭개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용될 것입니다. 그는 또한 세리들의 통치자였고, 원한다면 세리장이기도 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여기서 예수께서 누군가를 리더십 역할에 있는 사람으로 묘사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용어로 통치자라고 불리는 것은 산헤드린의 한 구성원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저명한 인물입니다. 또 다른 살펴볼 점은 이 사람의 경건함이나 종교적 상태입니다. 그는 매우 독실했습니다.

그가 유아기부터 예수에게 행해 온 일들에 대해 말한 것을 주목하세요. 그는 유대법에 대한 헌신에 매우, 매우 독실했고 좋은 방법으로 돈을 벌었던 것 같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가 실례합니다, 부패한 인물, 불의하거나 부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없지만, 우리가 가진 이미지는 그가 평생 따라온 것들을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의 신앙에 독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특정 기록에서 관찰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예수께서 이 젊은이, 또는 이 남자, 실례합니다. 그는 누가복음에서 젊은이라고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 그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젊은이라고 언급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그는 단순히 부유한 통치자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모든 소유물을 팔라고 도전하십니다. 그는 모든 물질적 소유물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또한 그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도전하시고, 친구를 사귀는 데 사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듯이 , 이 사람이 매우 부유했기 때문에 이 일이 정말 어려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도전하셨고, 저는 그가 자신의 소유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다면 하늘에 보물을 보장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그에게 제시하신 또 다른 것을 주목하세요. 그는 당신이 소유물을 놓아준 다음, 이 소유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구체적이고 구체적인 청중에게 놓아준 다음,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도는 그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와서 그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부자라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하라고 요청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가 삶에서 소유를 우선시하는 방식이 어머니의 마음을 사로잡을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으며, 그가 요청하는 한 가지가 그에게 진정한 도전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 반응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부유한 통치자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가 매우, 매우 슬퍼서 떠났다고 들었지만, 그것은 누군가가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냐고 말한 사람들에게 대한 두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이건 너무 심하군요! 하지만 더 흥미로운 것은 베드로의 세 번째 반응입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주님, 우리는 이것을 버리고 와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따르기 위해 많은 것을 남겨 두었다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당신은 충실한 제자가 되라고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루가 복음의 맥락에서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살펴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루가 복음에서 지위와 가치는 하나님의 왕국을 추구하는 데 있어 이차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가난 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방법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표면적으로 볼 때, 당신은 이 부유한 통치자를 재빨리 판단할 수 있지만, 유대법에는 야훼를 잘 따르려면 모든 소유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충실한 추종자, 충실한 언약 공동체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해 온 일이라고 나열한 것은 매우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그는 법을 준수하는 독실한 사람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가치를 얻었지만, 여기서 예수님은 한 가지를 만지고 계시고, 그 한 가지는 아마도 그가 삶에 대한 태도와 주변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관련된 태도보다 삶을 인식하는 방식보다 우선시되거나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일 것입니다. 루크가 실제로 하나님의 왕국에서 사회에서 소외된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왕국의 참여자이자 수혜자인 사람들을 얼마나 높이고 싶어하는지 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너무 많은 것을 요구받았기 때문에 슬퍼했고, 만약 그가 이렇게 했다면 그는 예수님이 될 것이고, 이것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좋은 선생님이라는 칭호에 항의하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선생님은 가르치고 있고, 그는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선생님은 부르고 있고, 그는 복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루칸의 표현을 따르지 않고 그는 갔고, 슬퍼했습니다. 그는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슬퍼하게 두었습니다. 여기서 8장 31절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12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그에게 질문했고, 그는 그들에게 답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31절에서 그는 12제자를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선지자가 인자에 대하여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요 그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조롱을 받고 욕을 받고 침을 뱉음을 당할 것이요 그를 채찍질한 후에 죽일 것이요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었고, 그들은 말한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구절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예언하셨고, 그들은 그것이 감추어져 있었고, 이해할 수 없었음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는 바로 그 다음에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먼저, 이 구절을 살펴보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메시아적 틀에서 사람의 아들은 예루살렘에 오고 있으며, 예상대로, 사람의 아들은 예루살렘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사람의 아들은 조롱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이 언어는 미국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그에게 침을 뱉을 정도로 굴욕을 당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수도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전락할 것이다.

그는 채찍질을 당할 것입니다. 그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결과를 겪을 사람이 될 것이고, 그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파악하거나 알지 못할 것이고, 누가는 제자들이 놓칠 것을 누군가가 잡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3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리코에 가까이 이르자,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고, 군중이 지나가는 것을 듣고, 그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그에게 말했고, 그는 예수, 다윗의 아들이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라고 외쳤고, 앞서 가던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했지만, 그는 더욱 다윗의 아들이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외쳤고, 예수께서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셨고 그가 가까이 왔을 때 그는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주님, 제 시력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했고 예수께서 그에게 시력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낫게 했습니다. 그는 즉시 시력을 회복 하고 그를 따라가며 그와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의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굴욕을 예언하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루칸의 아이러니에 따르면, 그가 예리코에 들어갔을 때, 예수와 함께 여행하지 않은 눈먼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한 눈먼 사람이었습니다. 눈먼 사람이 예수에 대해 들었다면, 그는 예수가 자비를 구하고, 이해하고 따를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환상적인 것입니다. 누가가 하는 일을 이해하면, 누가가 제자들이 예수가 전하는 것을 포착하지 못했을 때 눈먼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는 방식에서 문자 그대로 천재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

누가는 이 사건을 예리코 성 입구에서 찾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마가는 그것을 예리코 성에서 더 많이 놓습니다. 누가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예수가 예리코를 떠날 때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것을 설정한 것 같습니다.

사람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라는 언어에 주목하세요. 다시 말해, 누가는 제자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었을 때, 이 이야기에서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눈먼 사람이 마가복음에서는 티매오의 아들 바디매오라고 언급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이 눈먼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알아봤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 약 17, 14~17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이 사람은 그를 다윗의 아들로 알아봤습니다. 그는 자비를 간청했고, 자비를 간청하면서 우리는 그의 끈기가 보상을 받을 것임을 봅니다. 예수께서 기도에서 가르치신 끈기는 과부에게 하신 것처럼 자비를

간청하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눈먼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실 것이고, 그들이 그를 데려왔을 때, 그는 그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눈먼 사람은 예리코에 들어가기 직전에 보통 무기를 구걸하고 돈을 구걸할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정말 좋은 기회네요. 메시아가 지나가고 있고, 많은 군중이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는 방금 손짓을 하고 당신에게 온통 주의를 기울였고, 이제 그는 당신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사람이 돈을 좀 달라고 말하고 그릇에 동전을 넣으면, 군중 효과로 동전을 계속 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것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리코를 지나가는 마지막 순간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계속 부르짖지 않았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주의를 끌지 못했다면 어떨까요? 그가 자비를 구했을 때, 예수님이 그의 자비를 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는 사람들을 고용하여 그를 꾸짖던 사람들을 데려오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가 그를 데려와서 그를 고쳐줄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눈먼 사람이 시력을 얻게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시력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일어나는 일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누가가 다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버림받은 사람, 길에서 가난한 거지가 믿음의 모범이 되고, 자비를 구하는 사람의 모범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제자가 됩니다. 글썄요, 누가는 다윗의 아들의 언어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루가에서 많은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제자들이 그가 전달하거나 제시한 예언을 이해하지 못할 때, 눈먼

거지가 다윗의 아들을 알아보니다. 루가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들어올려 전면에 내세웁니다.

루칸의 아이러니에 대한 메모.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메시아를 듣고 알아보고 자비를 간청하는 것을 관찰합니다. 우리는 눈먼 사람의 믿음의 효능이 오늘 예수께서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고쳤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입증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또한 부유한 통치자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눈먼 거지가 그를 알아보고 믿고 따를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루가는 또 다른 장면을 보여줍니다. 매우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세리 진영의 핵심 구성원인 또 다른 사회적으로 소외된 집단이 예수님을 쫓아가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1절에서 그분이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시는데, 보라, 거기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으며, 예수께서 누구인지 보고자 했지만, 군중 때문에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앞서 달려가서 그분을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분이 그 길을 지나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시자, 그분은 고개를 들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서둘러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그래서 그는 서둘러 내려와 그를 기쁘게 영접하였고, 그들이 그것을 보고 모두 그가 죄인인 사람의 손님이 되려고 갔다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서서 주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제가 누군가를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늘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이 이 집에 왔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아들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왔기 때문입니다.

와! 여기서 삭개오는 세리입니다. 사회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집단입니다. 세리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 보여드리기 위해 화면에 표시했듯이 세리, 아무리 부자라도 선택한 직업 때문에 사회적 지위가 낮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배신자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인을 위해 세금을 징수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유대인을 희생시키고 로마인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세금을 징수하는 로마인의 대리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5장에서 예수께서 레위라는 세리에게 그의 팀에 합류하라고 부르실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15장과 5장에서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전 강의에서 언급한 비유에서도 18장에서 예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대조를 보여 주시고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로서 삭개오는 여기서 매우, 매우 흥미로운 경연 대회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 다른 버림받은 눈먼 거지가 다윗의 아들을 알아보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장소는 세리 한 명이 예수를 발견하고 그를 따르는 도시와 같습니다.

이 테스트에서 삭개오는 그에게 특정한 속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는 세리장 또는 통치자였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은 직함입니다.

우리는 그가 부유한 젊은 관원처럼 부유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작은 슬라이드를 올릴 텐데, 본문에서 그가 키가 작았다고 말할 때, 그 중 일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스어로 그 단어는 삭개오가 키가 작았거나 나이가 어렸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만약 당신이 삭개오의 언어를 키가 작다고 본다면, 당신은 오,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가 나이에 비해 작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누가는 매우 의도적으로 부자를 젊다고 부르지 않고 18장의 부자를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묘사하여,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것을 해왔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특징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삭개오를 오히려 부자 청년 세리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표현이 그가 키나 키가 작았거나 젊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예수를 찾는 사람이었고 나중에 예수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예수의 주인이 되었고 예수가 그를 알아보거나 그를 찾는 과정에서 그를 발견하고 오늘 당신 집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군중의 주저함을 주목하세요.

그들은 투덜거렸습니다. 그것은 15장에서 예수님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았을 때 바리새인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경건한 랍비가 세리들과 교류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삭개오는 순종으로 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부르시어 그가 온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초대하시어 그의 손님이 되라고 하시고 그는 받아들입니다.

가족 과 함께 있는 동안 삭개오는 어떤 법에 따라 자신의 소유물의 절반과 4배의 배상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올바른 자리에 있었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삭개오가 그의 집에 구원의 선언을 받게 될 것임을 봅니다.

즉각적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찾던 구도자가 이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와! 삭개오와 부자 통치자의 날카로운 대조를 기억하세요. 제가 차트를 만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가끔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수학은 그렇게 잘하지 못했지만 차트를 그릴 때는 잘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이 둘 중 하나를 해 봅시다.

저는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 삭개오와 부유한 통치자를 비교하고 대조하려는 차트를 올렸습니다. 리더십 역할 측면에서 두 사람 모두 본문에서 통치자로 언급됩니다. 부유한 통치자는 통치자였습니다.

삭개오는 통치자였습니다. 부의 측면에서 그들은 부유했습니다. 둘 다 부유했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부유한 통치자가 명예로운 수단으로 부를 축적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세금 징수원이었기 때문에 불명예로운 방식이나 멸시받는 방식으로 부를 축적한 것처럼 보입니다. 경건함의 관점에서 부유한 통치자는 율법을 준수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법을 따랐습니다. 삭개오는 사회적 죄인이었습니다. 세리로서 그는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루크가 두 사람을 묘사하는 이런 방식으로 묘사한 다른 점을 주목하세요. 정체성 측면에서 통치자는 부자 통치자이며 18장에서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삭개오는 세 번이나 이름이 언급되었습니다. 통치자의 자세는 그가 지킨 모든 법률로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으며, 삭개오의 반응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려는 의지를 보여주는데, 그가 다른 사람에게서 뜯어낸 모든 것을 보상하거나 보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장애물을 주목하세요. 부유한 통치자의 장애물은 그가 무료 자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부가 방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군중에 방해를 받았는데, 아마도 그의 지위가 낮았거나 어린 사람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키가 작은 사람이 사회가 당신이 다가가고 싶은 사람에게 접근할 수 없게 하는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학자들이 자캐오가 오히려 젊은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기울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또 다른 사회적 추방자, 세리, 가 막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된 것을 봅니다. 그와 그의 가족은 예수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강의에서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이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수난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계십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19장 11절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귀족이 먼 나라로 가서 왕권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하인 10명을 불러서 10분을 주고 내가 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민들은 그를 미워하여 대표단을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왕국을 받고 돌아왔을 때, 그는 돈을 준 종들을 불러서 그들이 장사를 해서 얼마나 벌었는지 알아보라고 명령했습니다. 첫 번째 종은 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당신의 미나가 10미나를 더 벌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잘했소, 착한 종들아. 너희가 아주 작은 일에 충실했으니, 10미나를 다스릴 권한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님, 당신의 미나는 다섯 미나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섯 도시를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님, 여기 당신의 미나가 있습니다. 제가 간직해 두었습니다.

나는 손수건에 넣어 두었습니다. 당신이 엄한 사람이라 당신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 말로 너를 정죄할 것이다, 악한 종이며. 너는 내가 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었다. 그런데 왜 내 돈을 은행에 넣지 않았는가? 내가 왔을 때, 나는 이자를 붙여서 그것을 모았을지도 모른다.

그는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미나를 빼앗아 10미나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주님, 그는 10미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주어질 것입니다. 더 많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아니하던 나의 원수들은 여기로 데려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인자의 오심과 그에 따른 심판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맡기신 것, 요구되는 책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나쁜 인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미치는 나쁜 태도의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청지기가 되도록 이 부를 주셨습니다. 이 강의를 마치면서, 저는 이 특정 우화에서 여섯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첫째, 10 미나의 비유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것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일이 일어날 곳을 정의하는 곳입니다.

신은 사람들을 돌보는 데 더 많은 것을 맡기셨고, 신은 그들에게 책임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고귀한 사람이 노예의 부정적인 초상화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일 것이라고 확립하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알게 되더라도, 주인이 남긴 사람을 미워하고 스스로 대응할 방법을 고안할 시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다가올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이 빠르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왕국의 메시지에 대한 핵심적인 문제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가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예수는 체포와 십자가 처형 이후에 긴 수준의 가르침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예수는 제자들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수행되어야 할 가르침을 사실상 종합하고 있다. 우리가 두 가지에서 보는 것처럼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다섯과 열 명을 계산하게 된 두 사람은 의무를 다한 충실함에 대해 큰 보상을 받았고, 왕국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도 충실함이 보상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인을 두려워하여 생산적이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또 다른 정산의 시간을 봅니다. 그에 대해 그가 가진 것은 빼앗겨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구원은 여기 있고, 인자는 미래에 심판하러 올 것입니다. 충실한 자들은 상을 받을 것이고, 불충실한 자들은 벌을 받을 것입니다.

만일 인자가 오늘 온다면, 그는 당신이 충실한 청지기임을 발견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내놓을 수 없었던 부유한 통치자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을 기꺼이 줄 의향이 있는 삭개오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루크는 우리 모두가 환영받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것이라고 상기시킵니다. 부자는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가능해질 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 통치자의 이야기에 대한 반응을 보았을 때, 베드로조차도 걱정했지만, 예수님은 가족, 집,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잃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여러 배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충실함은 보상을 끌어들이는다. 내 기도와 소망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여정을 추구할 때, 마치 우리가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그와 함께 걷는 것처럼, 우리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성을 사로잡을 수 있다.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의 자리를 찾습니다. 사회의 특별한 사람들은 올바른 태도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는 이후 강의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사람들이 메시아가 누구일지에 대한 기대는 그들이 그를 특정한 방식으로 받아들이도록 이끌 것입니다. 그들은 실망할 것이지만, 그가 제자들에게 한 말은 이해되거나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거의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굴욕을 당할 것입니다.

그는 불의를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이기고 승리를 주장하고 일어나 승리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적을 정복한 구세주가 될 것입니다.

죽음, 죄, 사탄은 그가 그들 모두를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옵니다. 당신이 아직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오늘 그분 안에서 구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저와 함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탐구하고 예수님을 인식하는 데 무엇이 방해가 되는지 묻는 여정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부일까요? 지위일까요? 교만일까요? 루크는 우리에게 이 모든 장애물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헤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를 위해 정하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를 마음에 두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며, 그분만이 아시는 대로, 그분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보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켜 주시길 바라며, 저는 여러분이 후속 강의에서 우리와 함께 이 학습 경험을 계속하기를 촉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루가 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다니엘 K. 다르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번호 28, 영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루가복음 18:18-19:27.